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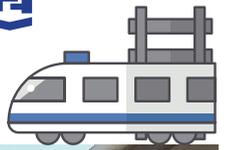


안산시 도심 순환버스 안내

※ 차량대수와 배차간격, 노선도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권역	명칭	기점·종점	주요 경유지	운행거리	차량대수	배차간격
서부권	맑은-Green	증양역	고잔신도시 - 초지역 - 안산역 - 선부동 - 성포동	13.1km	10대	10~20분
동부권	예술-Orange	증양역	성포동 - 부곡동·일동 - 본오동 - 사동(상록구청)	14.3km	10대	
남부권	해양-Blue	그랑시티자이	고잔신도시 - 증양역 - 한대앞/상록수역 - 사리역 - 사동	17.8km	10대	

시민 중심 교통 혁명! 교통약자 어르신 무상버스 지원 도심 순환버스로 전철역까지 10여분이면 OK!



수도권 서남부지역 거점 도시로 성장한 안산시가 수십 년 간 지속해온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시민'을 중심으로 40년 묵은 시내버스 노선을 확 바꾸고 '도심 순환버스'를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을 위한 무상 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시민을 중심으로 확 바뀐 안산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자.

시민의 소중한 시간과 교통 편의를 지킵니다

안산시는 최근 도심 순환버스를 도입했다. 기존 버스업체 중심이었던 버스노선을 시민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해 순환버스 운행에 나선다. 3개 권역으로 나눠 운행하는 도심 순환버스는 '맑은-Green(서부권)', '예술-Orange(동부권)', '해양-Blue(남부권)' 등으로 이름 붙여졌다. 12월1일 남부권 순환버스 '해양-Blue' 개통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총 10대의 순환버스가 10~20분 간격으로 하루 65차레 운행하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각각의 순환버스 이름은 시민 대상 공모(총 195명, 211건 접수)를 통해 정해져 더욱 의미 있다.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도심 어디서든 10여분이면 가까운 전철역에 도착할 수 있다. 실제로 본오동에서 부곡동까지 구간은 굴곡진 노선과 환승 등을 이유로 평소 50분 이상 걸렸으나 이동 시간이 10여분으로 단축됐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을 위한 '무상 교통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도심 순환버스 도입에 이어 공유 자전거·킥보드 등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르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용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으로,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상태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교통 혁명으로 앞당겨진 '5道(도)6鐵(철) 시대'

새롭게 바뀐 안산시 교통시스템에 이어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5도 6철 시대가 가까워졌다. 5도6철은 5개의 고속도로와 6개의 전철을 말한다. 영동·서해안·수도권제1순환·평택시흥고속도로와 닿아있는 안산은 최적의 교통 요충지다. 향후 안산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총 5개의 고속도로가 안산을 지나 5도를 잇게 된다. 특히 경기도를 순환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58.6km)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안산~인천' 구간이 연결되면 차량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안산은 고속도로 교통망이 매우 발달한 곳이다. 동해로 가고 싶으면 영동고속도로를, 서해 또는 남해로 갈 때는 서해안·평택시흥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서울과 경기도 각 시·군으로 이동할 때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개통하면서 안산선(4호선)과 서해선 등 3개 전철이 안산을 통과한다.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GTX-C노선 연장선이 모두 마무리되면 6철 시대를 맞이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다섯 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11.24.(화)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small>※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small>	수도권 100명 미만 타 지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 지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small>※ 60대 이상 수도권 40명 이상 타 지역 10명 이상 강원·제주 4명 이상</small>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결혼식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당 1명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확대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8㎡ 당 1명 (21시 이전)	
유흥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KTX 등 50% 예매 제한 권고	KTX 등 50% 예매 제한
등교	전체 인원의 2/3만 등교 권고	전체 인원의 2/3 등교	전체 인원 1/3만 등교 권고 (고등학교는 2/3)	전체 인원의 1/3 등교	전면 원격수업
종교 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인원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소·상황별 마스크 과태료 부과 여부



공원 산책, 등산 등 실외활동	TV 방송 등	헬스장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됨	공연·방송 출연 등을 할 때 마스크 착용 제외,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 할 때 제외, 스태프·방청객 등 / 촬영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격한 운동은 피하고,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분리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것)
음식점, 카페	흡연 시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음식·음료를 섭취할 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됨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 한정 촬영 시 예외 상황 인정)
결혼식장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	※ 단속 시 마스크 착용 지도 불이행했을 때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 ※ 예외 : 기저질환 등으로 호흡이 어려운 경우, 14세 미만 등
음식을 섭취할 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결혼식 진행 중일 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제외	물속·탕 안을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백전에 인내를 더 하면 평범했던 하루가 돌아옵니다.

앞으로의 2주는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

중점관리시설은 한번이라도 위반사항 적발되면 바로 집합 금지!

안산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수칙 이행점검·소독·방역에 총력



안산시는 11월24일부터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9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은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또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

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이 이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바로 집합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14종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이중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불가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방문객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등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하며 음식을 먹을 수 없다. PC방도 동일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역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 룸

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이·미용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적용하며 상점·마트·백화점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가 적용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제한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활동에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 식사, 숙박행사 등은 금지다. 모든 실내 활동을 비롯한 집회·시위, 스포츠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 방역 수칙 이행 점검 및 경기도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계도·점검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해 분야별 시설물 소독·방역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726)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막는다!

사랑의 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문 열어

안산시가 코로나19와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을 막기 위해 의료원 2곳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증상과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증세가 유사해 구분이 어려운 탓에 호흡기와 발열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적극적인 진료를 펼친다.

시는 사랑의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개소에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 운영에 나섰다. 올 연말까지 상록수·단원보건소 2곳에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안산 1호로 지정된 사랑의 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은 11월13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같은 달 16일부터 각각 운영 중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환자 간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병원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환자는 우선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역학적 연관성이 없으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통해 진료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의심 될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음압장치가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이 마련돼 있는 등 환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염 대응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이용 시간은 사랑의 병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일요일은 24시간 응급진료로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통해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한 1차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031-500-1760)
사랑의 병원(031-439-3000)



음압장치가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

디지털 제조 문화를 확산하는 ‘안산시 디지털제조스튜디오’ “창업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

안산시 디지털제조스튜디오가 기술 지원과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11월 문을 연 디지털제조스튜디오는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의 빠른 시장출시를 위해 신제품 생산을 돕고, 제조기술을 지원하는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융합생산기술연구소)이 위탁을 맡아 운영 중인 곳이다. 2019년 11월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지어졌으며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총 31종 45개 디지털 제조 장비를 갖추고 있어 창업기업에게 디지털제조기술을 지원한다.

디지털제조스튜디오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동작 시제품 제작 및 제조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 지원(13건) ▲제품 시험 생산체계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7건) ▲소비자 반응평가(4건) ▲사업화 브랜딩 지원(14건) ▲디지털 제조교육(12건·168명) 등을 수행했다.

특히 창업기업의 빠른 사업화를 돕기 위해 ‘신제품 출시’, ‘기존제품 성능 향상’, ‘수요처 요구에 대응한 동작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창업문화 활성화에 기여했

다. 이외에도 마케팅과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클라우드 펀딩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부터 홍보까지 지원한다.

디지털제조스튜디오는 디지털제조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제조아카데미도 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자 예비창업자와 일반인, 학생 등을 위한 창업 및 제품과 기본교육을 상시 운영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세대 과학리더를 위한 체험학습’도 방학 기간에 맞춰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3D Pen을 활용한 캐릭터 피규어’, ‘크래들 조명 만들기’ 등 찾아

가는 디지털제조아카데미도 진행 중이다.

디지털제조스튜디오 기술지원을 원하는 창업기업은 연 1~2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re.kr)를 통해 이메일(blue528@kitech.re.kr)로 접수할 수 있다. 안산시 소재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031-8040-6830)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4)



기술 서비스 지원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년·다문화가정 창업 지원과 다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안산-비비큐 **bbq** 500억 원 가치의 만남!

안산시는 11월17일 청년과 다문화가정의 창업 지원을 위해 국내 치킨 브랜드 1위 기업인 제너시스비비큐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다문화가정 창업 지원과 다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청년 및 다문화가정 창업가 육성 지원 ▲다문화특구 활성화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각종 지원 ▲창업 희망 청년 및 다문화가정 추천 등이다. 취약계층 창업지원과 동시에 다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시는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행정 지원을 하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각종 교육 등 창업 전반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제너시스비비큐는 5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청년·다문화가정 창업지원과 원곡동 다문화마을을 특구 내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지원하며 1천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은 외부 관광객 유입을 높이고 다문화거리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어진다.



국내 최초로 치킨대학을 설립한 제너시스비비큐는 창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며 모범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다문화특구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신성장전략과(031-481-2564)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365일 차 없는 거리’ 조성

안산시는 11월부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중심거리인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다문화길)를 ‘365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는 (구)원곡본동사무소에서 안산역 맞은편까지의 다문화길 340m 구간이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 실시된다.

시는 자동차 운행을 시간대별 부분 통제해 특구 내 명

소이자 자랑인 다문화음식거리가 오로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 없는 거리 구간에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해 차량을 통제한다. 단, 인근 상가의 물건 운송을 위한 일부 차량의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905)



가까운 안산에서 체계적으로 체력 관리하세요!

안산시, 국민체력100 안산체력인증센터 운영

안산시는 11월19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예체능대학 체육관에서 ‘국민체력 100 안산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해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다. 연령대별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공인 인증서를 발급해 군인 체력 시험,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앞서 안산체력인증센터는 올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9월 문을 열고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중단된 뒤 지난달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이번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를 방문하면 ▲유소년(만 11세~12세) ▲청소년(만 13세~18세) ▲성인(만 19세~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 등 연령별로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운동 전 위험도검사(PAR-Q), 신체구성검사(체지방률, 골격근량, 허리둘레), 체력측정을 위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등이다. 검사 후에는 맞춤형 운동 상담도 진행한다.

이용 대상은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무료로 체력 측정과 운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nfa.kspo.or.kr>) 또는 안산체력인증센터에 전화(031-436-8052~3)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치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예체능대학 체육관 1층 107-2호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7)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



심폐지구력 측정



윗몸일으키기 유연성 측정



장애인 권익옹호에 앞장서는 안산에 ‘오소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 20곳을 ‘오소가게’로 선정했다. 오소가게는 평범하고 친근한 인사말인 ‘이리(로) 오소’, ‘이리 오세요’ 등을 토대로 시가 자체 개발한 브랜드다.

오소가게는 물리적 제약과 편견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장애인복지관,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된 곳을 ‘장애인 권익옹호업소’로 선정하고 인증한다.

그동안 휠체어 접근 편의시설을 갖춘 우수업소를 선정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정서적인 편의를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 인증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시는 지난달까지 인증 절차를 거쳐 병·의원, 음식점, 이·미용실 등 업소 20곳을 오소가게로 선정했다. 오소가게로 선정된 업소에는 오소가게를 인증하는 현판과 함께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가 비치된다. 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11월19일 오소가게 1호점 현판식이 열린 안산연세안과는 2012년 2월 개원해 안산시 저소득층 아동진료 지원협약, 한국농아인협회안산시지회 진료협약 등을 체결하며 지역사회를 돕고 있다. 특히 의료진이 발달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배려한 시설도 갖췄다. 시는 매년 오소가게 선정을 지속하는 동시에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소가게를 처음 제안한 류경미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비장애



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흔한 일상이지만, 발달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에게는 동네 가게 이용조차 용기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이었다”며 “평소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맞아주는 동네 가게에 감사하다. 이러한 따뜻한 가게를 시민들이 더욱 응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장애인복지과(031-481-2204)

오소가게 현황

사업장명	주소	업종
루루태권도	상록구 중보로 23(사동)	문화체육
센트럴 락 볼링센터	단원구 고잔로 108, 5층(고잔동)	
파리바게뜨 초지역푸르지오점	단원구 화랑로 150, 상가2동(초지동)	베이커리
안산연세안과	단원구 고잔2길 59, 5층(고잔동)	병의원
새안산한의원	상록구 예술광장로 31, 6층(성포동)	
새안산상록의원 가정의학과	상록구 석호로 292, 2층(본오동)	세탁소
퍼펙트세탁소	단원구 당곡2로 23, 지층 9호(고잔동)	
남대문비전안경 안산점	상록구 향가울로 241, 2층(사동)	안경점
조선갈비 선부점	단원구 선부광장로 77, 2층(선부동)	음식점
이동고갈비	상록구 광덕1로 370, 2층(이동)	
부엉이돈가스	상록구 용신로 280(사동)	이미용업
신데렐라 헤어팜	상록구 부곡로 148-1(부곡동)	
더 예쁜머리	상록구 선암로 53(본오동)	카페
핑크라마	단원구 광덕대로 187, 115호(고잔동)	
나드오프	단원구 화랑로 130, 117호(원곡동)	편의점
손커피연구소 안산본오점	상록구 선암로 50(본오동)	
나는카페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사동)	편의점
대동북카페	상록구 석호로 235, 3층(사동)	
세븐일레븐(롯데캐슬점)	단원구 원초로 61(초지동)	편의점
미니스톱(안산예스점)	상록구 후곡로 23(사동)	



3층 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남기고
확 트인 풍경도 감상해보세요!

안산 별망어촌문화관

풍요로운 어촌 마을, 별망을 만나는 시간

별망 마을의 삶과 이야기가 흐르는 곳

시화호를 따라가다 보면 반달섬 인근 성곡동에 들어선 ‘별망어촌문화관’을 볼 수 있다. 도시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바다 내음 가득한 별망 어촌 마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별망 마을의 삶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별망어촌문화관을 소개한다.

산업화에 밀려 기억 속으로 사라진 별망 마을을 다시 만나다

별망* 마을은 1970년대 후반 반월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마을 대부분이 사라졌다. 마을이 없어지자 당시 30여 가구 주민들은 시화호 인근 해역으로 옮겨 어업을 지속했다. 하지만 어업 환경 변화로 더 이상 어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도시 성장 과정 속에서 마을을 잃은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주민들은 현재 소래와 대명포구에서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한 영어조합법인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사라진 시화호 어촌 문화를 복원, 계승하기 위해 별망어촌문화관이 11월26일 개관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문화관은 과거 황금어장으로 불리던 시화호 일대에 번성했던 어업문화와 별망 마을을 재조명했다. 별망 마을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기증한 유물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기억 속 별망 마을을 만나보자.



풍요로운 어촌 마을, 별망 속으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자리한 별망 마을은 일찍이 포구가 발달해 어업이 번성한 곳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와 평안북도 등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어업활동이 활발해져 새우와 꽃게 등을 잡는 어선만 30여 척에 달했다고 한다. 이때 ‘낭장망 어업’ 등 별망 마을 대표 어업활동도 활발히 이뤄져 마을이 크게 번성했다. 낭장망 어업은 중선이라는 어선에 그물을 싣고 연안으로 나가 주요 물길에 큰 말뚝을 깊게 박고 자루처럼 생긴 그물을 바다에 던진 뒤, 일정 시간 후 그물을 올려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어선어업도 안산 해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어업으로, 주로 조기나 새우 등이 많이 잡혔다. 별망 마을은 특히 젓새우가 많이 잡혔는데 대부염전과 남양염전에서 가져온 소금으로 버무려 만든 새우젓은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별망 마을 새우젓 특유의 깊은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별망 : 조선시대에 초지진에 주둔해 망을 보던 별망군들의 망루가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김영미 명예기자_flowerym@hanmail.net

즐길거리



모래체험

모래의 높낮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보세요!
모래를 손으로 직접 쌓아 지형과 물길을 만들면 바다 속으로 다양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별망상회

별망 어촌 마을의 생활상을 아기자기하게 재현해놓은 공간.
오래된 소품들을 보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이용안내

- 1층 : 특산품 판매점(안산시 인증 농·특산물 등), 고객지원실, 수유실
 - 2층 : 테마 별 전시관, 체험 공간, 야외 데크
 - 3층 : 드넓게 펼쳐진 시화호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553(성곡동)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관람요금 : 무료
문 의 : 안산별망어촌문화관(031-434-9071)

대부도 누에섬의 지리적 특성과 생태 감수성을 담다 바람 따라 움직이는 공공미술 작품, '안테나 새'



민성홍-안테나 새(예상도)

대부도 탄도에 위치한 누에섬은 하루 두 번 열리는 바닷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신비로운 섬으로 노을과 세 개의 거대 풍력발전기가 만드는 풍광이 이색적이다.

안산문화재단이 경기만 에코뮤지엄 '대부도 예술섬 누에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부도 누에섬에 민성홍 작가의 공공미술 작품 '안테나 새'를 오는 12월 중순경 설치한다.

민성홍 작가는 안테나라는 상징적 오브제를 통해 사회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영향력과 정체성을 표현했다. 누에섬의 지리적 특성과 생태 감수성을 공공예술로 담아낸 작품으로 고정형 조형물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회전도 하는 작품이다.

2016년부터 안산문화재단은 누에섬을 배경으로 지역 활성화와 문화적 생태감수성을 담아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엮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대부광산 퇴적암층까지 장소를 확장해 공공예술 체험과 지역 명소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트 프로젝트 문화행사 위주로 추진되던 '에코뮤지엄 프로젝트'는 올해 코로나19로 '예술 섬'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지난 2017년에 설치된 이윤기 작가의 '바람과 춤추는 물고기'와 연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역 조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민성홍 작가의 '안테나 새'를 선정하고 두 번째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게 됐다.

에코뮤지엄 담당자는 "작가 특유의 고유한 작업형식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작품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설치할 예정"이라며 "대부도라는 장소에 단순히 작품을 설치한다는 의미보다는 장소를 조사하고 연구해 대부도에 맞는 작품으로 대부도에 가면 볼 수 있는 반영구적 공공 미술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테나 새' 공공미술 작품은 경기도, 안산시, 경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이 함께 주최, 주관하는 2020 경기만 에코뮤지엄 대부도 예술섬 누에 프로젝트 사업이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2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12월 문화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전시 2020.10.29.~2021.2.14. 경기아트프로젝트 <흰 밤 검은 낮> 장소 경기도미술관	전시 2020.10.13.~2021.1.17. 2020 청년작가전 <어제모레> 장소 경기도미술관	1	2	3 공연 19:30 안산시립합창단 <베토벤, 그리고 겨울>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4	5
6 White Night 흰 밤 검은 낮 Dark Day	7 OUTDATED 어제모레 FUTURE	8 전시 2020.12.8.~2021.2.28. 경기예술창작지원 성과발표展 <생생화화 生生 化化 2020 안산> 장소 단원미술관	9	10 공연 10:30 년버벌 퍼포먼스 <옹알스>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1 공연 10:30/19:30 년버벌 퍼포먼스 <옹알스>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2 공연 년버벌 퍼포먼스 <옹알스>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3	14	15 공연 10:00/11:20 매직드로잉 가족극 <두들팝>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6	17 공연 14:00 뮤지컬 <빨래>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8 공연 11:00/15:00 뮤지컬 <빨래>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9 공연 14:00/18:00 뮤지컬 <빨래>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	21	22	23	24 공연 11:00/14:00/16:00 어린이뮤지컬 <렛잇고 시즌2>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5 공연 12월 25~27일 11:00/14:00/16:00 어린이뮤지컬 <렛잇고 시즌2>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6 공연 18:00 재즈크리스마스 with 윤희정
27	28	29	30	31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NTERVIEW

안산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취업 걱정 끝!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이 이야기하는 학생권익 보호부터 학년별 취업 전략까지!



아이들이 미래에 선택하게 될 직업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학교, 나아가 국가 전체의 관심사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자신의 적성을 미리 파악해 취업과 진학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되는 취업난 속 주목을 받고 있다.

안산시는 이러한 특성화고의 장점을 살려 관내 특성화고 6곳에 취업지원관 3명을 배치했다.

취업지원관이 학생 개개인의 전공 분야 역량을 분석하고 일자리 참여 기회를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돕는다.

2018년부터 안산공업고와 안산국제비즈니스고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경희 취업지원관은

“특성화고 진학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송 취업지원관을 지난 11월12일 안산국제비즈니스고에서 만났다.



송경희 취업지원관

Q. 취업지원관 역할과 업무를 소개해 달라

취업지원관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취업지도, 학생권익 보호 활동을 한다. 학생 개개인의 취업 역량을 분석해 취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돕고 면접도 지도한다. 기업체 면접을 볼 때 학생과 동행하기도 한다. 또 우수 취업처를 발굴해 일자리 정보를 관리하고 복교생을 위한 면접과 취업도 지원한다. 근로기준법과 임금 체불 대처법을 알려주는 등 학생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Q. 취업지원관이 생기면서 학생들은 무엇이 달라졌나?

취업지원관이 배치되면서 학생들은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면접 지도와 기업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 면담을 통해서 취업과 진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전에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동행 면접으로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게 됐다. 회사 견학도 가능해지면서 학생들도 취업 의지가 높아졌다. 합격 후에는 직장 예절 지도를 통해 적응력도 높일 수 있다.

Q. 학년 별 취업준비 전략은?

전 학년에 공통되는 점은 ‘중소기업 바로 알자’이다. 대기업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중소기업 현황을 이해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도 잘 알아야 한다. 우선 1학년은 진로 로드맵 작성, 나를 찾는 여행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을 쌓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1개 이상을 따야 한다. 2학년은 학과와 취업을 연계한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또 각종 서포터즈와 봉사활동, 기업 현

장견학 등도 필요하다. 입사 서류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단계로 2개 이상의 전공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3학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모의면접 지도 등을 받는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산업체 현장 견학과 온라인 비대면 박람회 참석 등을 권한다.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하며 전공자격증도 3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Q. 특성화고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특성화고는 재학 중에 전공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이 쉽고 실무 능력을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하기가 쉽다.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특성화고 사업으로 진로 선택지가 많다. 여기에 정부지원책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 시 실습 수당 보조와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급 등 경제적인 혜택이 많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취업 맞춤형은 병역특례로 병역의무면제와 실무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특별 전형으로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요즘 같은 취업난 시대에 특성화고 진학은 탁월한 선택이다.

Q. 일하면서 느꼈던 점 등 하고 싶은 말은?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찾아와서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취업지원관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과 맞는 기업을 찾아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취업지원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전문 취업지원관 파견이 계속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278)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움직이는 '온마을 자연학교' 시리즈 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안산은 생태환경도시로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재단을 설립했다. 안산환경재단이 지원하는 안산형 시민환경교육 통합 브랜드 '온마을 자연학교'는 마을 주민이 환경교육 리더가 되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벌인다. 지역 자연생태환경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하고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온마을 자연학교 동아리를 6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자원 순환을 위한 업사이클링 동아리

아름드리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는 마을 주민 전체가 자원 순환에 앞장서는 하나의 환경 공동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온마을 자연학교 동아리 '아름드리'가 주축이 되어 마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자원 순환 활동 등을 펼친다. 2014년 10월 처음 만들어진 아름드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지금은 반월동 전체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아름드리는 아동과 청소년, 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마을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을 정확히 알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양한 마을 활동은 어린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정주 의식(定住意識)을 갖고 자라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아름드리는 2019년 한 해 동안 '마을 꽃 심기', '청소년 자원 순환 캠페인', '하천정화활동', '업사이클링 및 자원순환 교육' 등을 펼쳤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등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일을 말한다. 아름드리는 지난해 주민,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대회의실에서 업사이클링 수업을 진행했다. 쓰지 않던 물건이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하는 시간이었다. 또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자원 순환 캠페인은 반월역

일대에서 각각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청소년 스스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 위험성을 인지하고 환경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아름드리 관계자는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환경'이라는 씨앗을 심은 것 같아 뿌듯하다. 마을 주민과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들이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05~6)



산업단지 악취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료 채취장치 확대 설치·U-Clean 통합시스템 고도화



안산시가 국가·지방산업단지 악취 관리지역 및 영향지역에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10대를 확대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집중 관리에 나섰다.

시는 선제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이동식·고정식 악취 측정소를 설치하고 'U-Clean 통합시스템(악취센서·악취모델링·CCTV·기상장비)' 구축 및 악취포집차량, 무인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11대) 운영을 통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악취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 환경영향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이 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고, 고도별 악취 모델링

개발 등 악취관리 U-Clean 통합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9일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10대를 반월시화산단 및 반월도금지방산단 일대에 추가 설치해 악취저감 대책을 강화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는 기기에 설정한 악취 수치가 초과하면 무선통신을 이용해 악취가 확산되기 전 즉시 포집해 악취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해 관리한다. 기기 온도·습도·풍속·풍향 등에 대해서도 무선통신(웹)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악취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산업단지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산단환경과(031-481-2897)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 #### 1.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등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 미세척된 컵라면 용기는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움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첩용·기름통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 재활용 가능
---	--	---
- #### 2.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과일망, 과일포장재 재활용이 어려움	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깨진병, 판유리는 재활용이 어려움 > 신문지에 싸서 버림	도자기류, 사기그릇 재활용이 어려움 > 불연성쓰레기로 배출
아이스팩 고흡수수지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분리 배출)	보온보냉팩 재활용이 어려움	문구류 (볼펜, 샤프, 칫솔 등)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CD/DVD, 고무장갑, 슬러퍼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노끈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재활용이 어려움	기저귀, 화장지 재활용이 어려움
- #### 3. 폐비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배출 해주세요

음식물이 묻은 비닐 행구시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재활용 불가품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	--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의 분리배출업** 을 참고해주세요

올겨울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주의하세요!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세가 유사하지만, 발병 순서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고 최근에는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돼 어떤 증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코로나19는 감염되는 사람에 따라 중증도와 증상이 다양하지만 평균 5~7일,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후각·미각 소실은 다른 감염증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이적인 증상이다.

독감은 이와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평균 2일, 최대 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등 증상이 발현된다.

두 감염증의 공통점은 기침, 재채기를 통해 발생한 침방울(비말)이나 침방울이 묻은 손 등으로 전파된다는 점이다. 비말의 경우 보통 2m 이상 확산하나, 실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

를 지르면 훨씬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 발생순서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는 발열→기침→인후통·두통·근육통→구토·설사 순이지만, 독감은 기침→근육통·두통·인후통→발열→구토·설사 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노출된 바이러스 양, 개개인의 면역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발생순서만을 갖고 두 질환을 구별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독감이 코로나19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100% 예방 효과는 되지 못하므로 접종 후에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은 항상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위험요인에 노출됐거나, 평소와 다르게 호흡기 증상이 생겼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41)
단원보건소(031-481-6360)

건강지식 칼럼

잘못된 생활습관은 없을까?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박소영 교수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흡연, 음주,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일상 속 습관이 더해져 발생하는 질환들을 흔히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역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당뇨병 환자는 약 32만 명으로 전년보다 5.9%가 증가하였고, 5년간 69만명 27.7%가 늘었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해 소화효소로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으로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체장에서 분비되어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데 부족하거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는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어떤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비만, 노화, 식생활, 운동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이상, 약물복용 등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줄어든 때에는 몸의 변화로 비만이나 우울감이 증가하여 혈당이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다음, 다식, 다뇨와 함께 체중 감소, 시력저하, 피로감 및 무기력이 동반되는 경우 당뇨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보통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식사 후 2시간 혈당은 140mg/dL 미만입니다. 당뇨병은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식사와 상관없이 혈당 200mg/dL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수치가 정상과 당뇨병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당노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치료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혈당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손쉽게 당뇨병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당뇨병의 정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당뇨병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자기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론

보통사람, 마인두 ②

배재호 X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다음호에 계속...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 도시 Ⅲ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시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요즘, 안산시는 12월부터 내년까지 방범CCTV 대규모 확충과 고화질 교체에 나서는 등 각종 안전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안산시가 마련한 안전 시책을 소개한다.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범죄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방범CCTV 집중 모니터링

“수상한데?” 지난 8월 오후 8시가 넘은 시각,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어느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던 한 남성이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눈에 들어왔다.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 하는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요원은 해당 남성을 집중 모니터링 했고, 결정적인 절도행위 순간을 포착해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중무휴 운영 중인 안산시 통합관제센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는 범죄 사각지대를 지속

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관내 방범CCTV는 3천622대(상록구 1천812대·단원구 1천810대)로, 연말까지 243대가 추가로 설치된다. 시 통합관제센터는 CCTV를 활용한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친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절도범 검거, 범죄예방 경고방송, 만취자 및 비위청소년 보호 등을 한다.

특히 7월부터는 경찰, 소방 등과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사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센터가 확보한 현장영상이나 출동경로·도주경로 정보 등을 제공한다.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방범CCTV 모니터링도 지능적으로!

안산시 도시정보센터는 12월 안으로 ‘안면인식시스템’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일부 CCTV에 도입한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성폭력 등 각종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이번 도입을 검토했다.

특히 각종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범 안전 도시로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기존에 방범CCTV 영상을 육안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계를 벗어나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얼굴인식, 차량인식, 객체인식, 행동 감지 인식 등을 통해 해당 CCTV카메라로 입력 대상을 자동 선별해 모니터링 한다. 저장된 사진을 통한 선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사고 발생 또는 예방에 있어 활용도가 높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범인검거에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 실종사고와 관련한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카오톡으로 확인하세요

11월 25일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시범 실시



수신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성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청방법

수신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 누리집 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전자고지서를 열람하면 종이고지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는 우편고지 병행) 2021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 도시 IV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안산시가 준비한 ‘안심 종합 세트’를 소개합니다”



안심 벨

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에 설치된 벨 하나를 볼 수 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이 벨을 누르면 안산시 통합관제센터 상황실과 곧바로 연결된다. 공중화장실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도 ‘안심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위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곧바로 경찰서 112 상황실로 연결된다.



음원 감지기

음원 감지기 역시 위급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준다. 공중화장실 내에 설치된 음원감지기는 약자 대상 ‘묻지마 범죄’를 막는 필수 장비다.

비명과 고성만으로도 경찰에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벨을 찾아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

내가 이용한 장소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다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산시가 무료로 대여하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면 이들 동안 각종 장비를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세트를 이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강화하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택배가 도착한다면 도난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사용하면 된다. 택배수령이 불편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마련한 무인택배함으로,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무인택배함 상단에 부착된 무인단속카메라가 골목길 곳곳을 비춰 범죄를 막는다.



이용 방법은 물품 구매시 택배 수령지를 무인택배함 주소로 지정하면 택배기사가 수취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물품을 보관한 뒤 관제센터에서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물품보관 연락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인증번호를 입력해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현황

설치장소	무인택배함 주소	상세위치
반월동행정복지센터	상록구 건건로 51 (건건동)	정문 옆
본오도서관	상록구 각골로 49 (본오동)	현관 출입구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상록구 성호로 303 (부곡동)	복지관 출입구
해양동주민자치센터	상록구 한양대학로 31 (사동)	대로방향 측면
이동행정복지센터	상록구 이동로 46 (이동)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보관대 내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단원구 중앙대로 945 (고잔동)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생활관 출입구 앞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단원구 와동로 118(와동)	복지관 건물 옆면 (파출소 방향)
다문화안전경찰센터	단원구 다문화2길 51 (원곡동)	다문화안전경찰센터 옆면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단원구 지곡로 46 (선부동)	동 행정복지센터 보조출입구
선부석수경로당	단원구 북촌2길 17 (선부동)	어린이 놀이터 입구

안심 거울(미러 시트지)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거리 주변 불안요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다. 경고안내판과 함께 길거리 곳곳에 설치돼 긴급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할 수 있다. 주택 현관문 등에 부착하며 귀갓길 주변 불안요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인다.

1인 여성가구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외벽에 특수한 형광 물질을 도포한다.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창틀이나 파이프, 담장 등에 집중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면 그 흔적을 보존할 수 있다. 범인 추적 추적에 용이하다.

태양광 보안등 설치

어두운 골목길을 환히 비추는 태양광 보안등은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사람들의 결을 안전하게 비춘다. 평소 불빛 하나 없던 골목길 등 필요한 지역에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인터뷰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

**폭발적 스피드!
혜성처럼 등장한
한국 육상 유망주**



콩고 출신 이주민 부모를 둔 비웨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다. 2003년 안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쪽 살고 있다. 경기 전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된장찌개를 꼽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뛰고 달리는 것을 좋아한 비웨사

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스스로 육상부를 지원해 활동했다. 일찍이 육상에 재능을 보였지만 한국 국적 취득이 어려워 중학생이 될 때까지 전국 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귀화하면서 체육특기생으로 원곡고등학교에 진학, 처음으로 전문 육상 교육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한 지 1년 여 만에 남자 고등부 100m 정상을 차지한 것이다.

현재 원곡고 육상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동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년 시즌을 위해 더 달려야죠”

고교 단거리 유망주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18·원곡고2)가 내년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올 시즌 세 번의 우승을 거둔 그는 단숨에 한국 육상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훤 코치와는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다. 비웨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참가한 높이뛰기 대회에서 김 코치가 심사위원을 맡았는데 이때 비웨사를 눈여겨본 인연이 지금까지 오게 됐다.

비웨사는 올해 8월 출전한 추계 중고육상대회에서 개인최고기록 10초69를 세웠다. 10월에 열린 문체부장관기 전국육상대회에서는 남고부 100m 1위(10초79)에 이어 200m 경기에서도 1위(22초69)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고교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비웨사에 대해 김 코치는 콩고 출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신체 능력과 발목 힘, 단거리 육상에 필요한 속근육, 탄력성 등을 그의 강점으로 꼽았다. 비웨사도 레이스 후반에 펼쳐지는 자신의 빠른 스피드를 강점으로 소개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그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2021년에는 자신의 개인최고기록을 깨고 10초3대 진입을 목표로 훈련 중이라는 비웨사.

그는 “경기에 참여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긴장감을 다스리는 일이다. 경험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긴장하는 일이 많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기 위해 훈련에 더욱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비웨사 대회 출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산·사람·삶을 이야기 하는 영상제작 동아리 '안산zoom'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영화제 '우리 동네 깐 영화제'

영화관에 발을 들여 본 적도 없고, 시나리오와 콘티가 뭔지도 몰랐던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이 모여 취미로 시작했던 ‘우리 동네 깐 영화제’가 올해 6번째로 열렸다. 안산과 사람 그리고 삶을 주제로 우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안산zoom’을 소개한다.

2015년 결성된 영상제작 동아리 안산zoom은 전문 배우나 감독이 참여해 만든 것이 아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퇴근 후 모여 영상을 제작하다가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영화제를 기획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우리끼리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제1회 우리 동네 깐 영화제 때는 ‘관객모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안산zoom 살림꾼인 정완근 반장은 “첫 영화제 때 관객모독이라는 평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영화제는 하지 말자고 회원들과 약속했는데 벌써 6회를 맞이했다. 다들 일하면서 영화제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지만 매년 영화제를 찾아주시는 관객들이 있어 힘이 난다”고 말했다.

안산zoom은 매년 소소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우리 동네 깐 영화제’를 열고 있다. 정 반장은 “영화를 만들다보면 언젠가 안산zoom 회원 중에 누군가가 프랑스

깐 영화제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담아 재미로 지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러다 진짜?’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안산zoom은 영화 제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독을 초빙해 영상제작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 시나리오 작성, 촬영장비 사용법, 편집 기술 등을 배워 좀 더 수준 높은 영화를 관객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다음 영화제에 올리고 싶은 영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영화 제작을 위한 스태프부터 배우 역할까지 모두 함께 정한다.

지난 11월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유튜브 온라인 상영회로 진행한 제6회 우리 동네 깐 영화제에서는 20분

내외 극영화 3편이 소개됐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건을 주제로 한 김미애 감독의 ‘안녕’,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현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신명철 감독의 ‘현수 대마를 꿈꾸다’, 촘촘한 일상에서 틈새행복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질문을 다룬 최정민 감독의 ‘살아가는 이유를 납득시켜 주세요’ 등이 상영됐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함께 영화를 제작했다는 신명철 감독은 “영화제가 끝나면 늘 아쉽다. 내년에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잘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을 항상 갖는다”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 안산zoom 활동은 삶의 활력소”라고 말했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반려동물의 아름다움까지 책임집니다” 새로운 신중년 일자리로 떠오른 ‘애견미용사’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자료에 따르면
애완동물 미용사는 2016년 약 8천 명에서 2026년이면 약 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만 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사회, 핵가족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용 수요도 높아졌다.

안산시평생학습원은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셀프 애견 미용’ 강의를 열었다. 수강생들이 기초적인 애견 미용 과정을 이해하고, 이론과 실습을 통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반려견을 미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위생과 청결, 관리 위주 미용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미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반려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커트나 염색을 요구하면서 꾸미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애견미용사가 되려면 관련 자격증을 우선 취득해야 한다. 한국애견연맹의 *트리머 자격증과 한국애견협회 애견미용사자격증이 대표적이다. 자격증 취득에 나이 제한은 없다. 반려견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신중년 일자리로 도전할 만하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동물병원, 애견센터, 애견전문미용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애견미용사를 대규모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보니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 본인이 직접 애견미용실을 운영하거나, 핸들링 등 다른 분야를 배워 반려동물훈련소, 동물테마파크 등에서 일하는 동물조련사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다.

셀프 애견 미용 강의를 맡은 천준영 강사는 “최근 애견미용을 직업으로 고려중인 수강생들이 많다. 젊은 분들부터 중년층까지 도전하는 연령층이 다양하다”면서 “이번 강의에서 시설이 부족해 실견 실습은 어렵지만 애견미용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직업 소개, 기본적인 커트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트리머 : 반려견에 대한 전문 지식과 미용 기술을 갖고 미용과 위생을 담당하는 전문가.

문의 : 안산시평생학습원(031-481-2768)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주민이 만드는 지역 여행, 안산에서 만나는 관광두레 시리즈 ㉔



대부도만의 경쟁력을 발굴하는 ‘섬에 사는 청년들’

가장 대부도다운, 대부도만의 관광을 만들기 위해 대부도 청년들이 뭉쳤다. 대부도가 가진 경쟁력을 살려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섬에 사는 청년들’이다.

섬에 사는 청년들은 대부도에서 나고 자랐거나 대부도에서 생활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 5명이 모여 만들었다. 이들의 만남은 문화 공간 ‘섬자리’에서 문화 활동을 하던 청년모임에서 시작됐다.

모임에서 대부도를 바라보는 시선 등을 조사하던 중 ‘망태기 만드는 법’, ‘대부도에 하나밖에 없는 대장간’ 등 지역 특징을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관광 콘텐츠 개발로 이어졌다.

신현무 섬에사는청년들 대표는 “대부도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고민하던 중 대부도가 간척지가 되면서 어업 활동이 줄어 든 분들이 할 수

‘관광두레’는 마을주민이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음식과 체험, 기념품, 레저, 숙박 등 관광 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개발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소비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2019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5개의 주민사업체가 창업에 나섰다. 안산 고유 관광 아이템 개발에 나선 주민사업체 5곳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섬에 사는 청년들은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아이템으로 대부도 농민들 중 망태기 공예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대부도 간척지에서 생산한 쌀로 만든 대부막걸리를 지역특산품으로 내놓으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대부도가 환경 자원으로만 소비되는 관광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섬에 사는 청년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 아이템 샘플 출시, 하반기 마케팅 등 관련 계획

이 모두 무산됐다.

신 대표는 “모든 계획이 다 멈춘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관광 콘텐츠 개발 준비 단계에 있다. 언제쯤 사업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다”며 “대부도가 관광지로서 입지가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이제 막 도로가 뚫리고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다. 우리도 대부도만의 관광 아이템을 만들어 대부도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 섬에 사는 청년들(032-715-4033)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13월의 월급 나도 한번 받아보자!

2021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2021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10월3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모의 연말정산을 해보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은 홈택스에서 조화가 가능하지만 빠지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치아교정비용 등이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일부 항목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직접 영수증과 세액공제 신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항목별로 다른 공제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챙기자.

연말정산 세제혜택 & 소득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카드 사용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하자. 올해 한시적으로 카드 사용한도가 30만 원씩 늘어났다. 해당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12월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 한도를 채워보자. 전통시장 이용은 별도로 지출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마트 대신 시장을 이용해 공제 혜택을 늘려보자.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공제율 변경’이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80%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안산시 다운카드는 체크카드와 공제율이 같다.

1~2월과 8월 이후는 기존 소득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3월 사용분에 한해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의 2배를 적용한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0년 신용카드 등 월별 소득 공제율

결제 수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80%	40%
도서 / 공연 미술관 등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30%	60%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인 총 급여 기준으로 30만 원씩 상향됐다.

총 급여 구분	기존	변경 (2020)
1.2억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7천만 원 ~ 1.2억	250만 원	280만 원
7천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의료비, 기부금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변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월세 세액공제도 달라진다. 85㎡가 넘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 근로소득과 주택자금공제 확대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올해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이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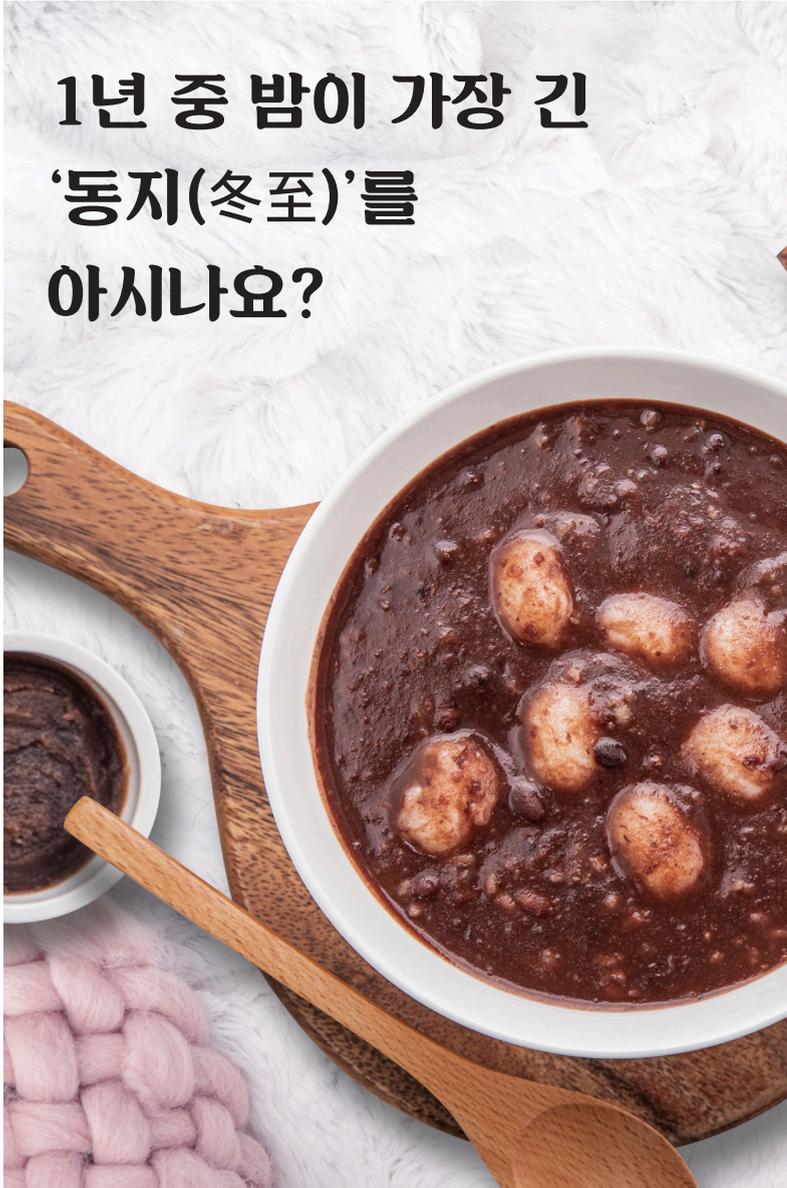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을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영문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를 통해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 중이다. 연말정산을 영문으로 안내한 책자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매뉴얼 등을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연말정산 환급 꿀팁

-  체크카드, 신용카드 섞어서 사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현금영수증 챙기기
-  안경, 렌즈, 휠체어 영수증 챙기기
-  자녀교복, 학원비 영수증 챙기기
-  홈택스서비스 이용하기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를 아시나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모두들 마음이 들뜨는 때지만 올해 12월21일은 우리나라의 작은 설, 동짓날이다. 24절기 중 스물 두 번 째 절기인 동지는 북반구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낮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조선시대에는 동지를 설 다음가는 중요한 세시명절로 여겨 작은 설, '아세(亞歲)'라고도 했다. 날씨가 춥고 밤이 긴 탓에 '호량이 장가가는 날'로도 불리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라는 표현의 시조도 있을 만큼 조상들의 생활 속 친근한 명절이었다.

"동지하면 떠오르는 동지팥죽은 언제부터 먹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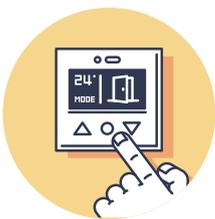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데 동짓날 먹는 팥죽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먹을거리가 귀하고 겨울철이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시절에 동지팥죽은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한겨울을 건강하게 잘 나기 위해 모자라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이었다. 또 정성이 담긴 팥죽을 나눠 먹으면서 마음 속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새해를 건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가정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동지 이벤트'

동짓날 긴긴밤에 온가족이 따뜻한 집에 모여 앉아 팔로로 된 음식을 먹으며 소원지에 새해소망을 적어보는 것은 작지만 즐거운 동지 체험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에게는 '팥죽할멈과 호랑이'와 같은 재밌는 동지 관련 전래동화를 읽어주며 함께 민화 달력을 만들거나 우리가족 기념일이 표시된 새 달력을 집안에 거는 것도 12월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 방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를 쫓아내고 건강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 12월21일 동짓날 가족들과 함께 팔로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알뜰한 당신에게 드리는 생활 속 꿀 팁~ 몸과 마음이 차가워진 올 겨울, 난방비 절약으로 더욱 따뜻하게!



보일러가동을 똑똑하게

실내온도를 겨울철 건강온도(18도~20도)로 유지하면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돼 아토피와 호흡기 질환 등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본격적인 난방 시작 전, 보일러 배관과 필터를 청소해 열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한 겨울에 외출할 때는 보일러 전원을 끄지 말고 '외출' 기능을 사용하자. 보일러를 끄고 외출하면 다시 가동할 때 난방수를 빨리 데워야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나오게 된다. '외출' 기능을 사용하면 보일러는 가동하지 않지만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보일러 동파를 막을 수 있다.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습도가 높아져 방이 빨리 따뜻해지고 열이 오래 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를 50~60% 유지하자.

또한 수돗물을 안 쓸 때는 수도꼭지를 찬물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보일러가 가동하지 않는다.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두면 보일러 유수 감지기가 이를 감지해 물을 계속해서 데우면서 결국 난방비가 상승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단, 영하의 날씨에 외부에 있는 수도일 경우 온수가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해야 얼지 않는다.



열손실을 줄여서 난방비를 절약하자

아무리 난방을 해도 열 손실이 생기면 헛수고다. 현관문과 창문에 문풍지를 붙이고 창문유리 면에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 캡을 붙여보자.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커튼을 설치하면 집안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두꺼운 천과 얇은 천이 동시에 달린 이중커튼을 사용하면 외풍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다. 또 바닥에 러그나 카펫을 깔면 온기를 잘 보존해 전체적인 집안 온도가 상승하고 층간소음까지 줄일 수 있다.



체온 상승에는 소품 이용이 제격!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고 한다.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2~3도 가량 올라간다. 카디건, 덧신, 수면양말과 모자, 목도리를 활용하자. 목과 머리만 따뜻하게 해도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제 몫을 톡톡히 하는 일회용 발열 핫 팩을 이용하자. 핫 팩에 열이 남아 있을 때 비닐에 넣고 밀봉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개봉하면 발열되므로 여러 번 쓸 수 있다.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p>난방기구 사용시 최소 1m이상 떨어져서 사용 합니다.</p>	<p>전기장판 사용시 위에 이불을 깔아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p>	<p>핫팩이나 손난로 사용시 손수건으로 감싸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p>
--	--	---

인터뷰

박은경 안산시의회의장



Q. 최근 ‘시민 안전’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반기 시의회가 2021년 중점적으로 펼칠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요?

조두순의 출소 문제로 지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66회 임시회에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린 바 있습니다.

제2·제3의 피해자를 막고 성 관련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흉악범의 보호수용을 명시한 보호수용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중앙의 법제적 보완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에 나서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 출범 2년차를 맞는 2021년은 8대 의회의 의정 목표를 구체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의회가 그간 추진했던 ‘기본에 충실한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운영의 묘를 발휘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 운영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더불어 중요 사안은 과감히 상임위원회 벽을 허물고 논의의 폭을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바꾼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된 의정활동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제는 ‘언택트’가 일상화된 시기이기에 IT 기술을 활용해 대면은 최소화하면서도 사안의 핵심에 빠르게 접근하는 방식의 의정활동을 구상 중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대시민 소통 구조를 확립해 한 발짝 더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Q.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안산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태입니다. 그 여파도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달라진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적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를 입은 지역 각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시가 최근 안산형 민생경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안산형 2차 지원금 지급에 나섰던 것도 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시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진행 중인 제267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2021년도 본예산안과

입법안들을 심의하게 되며, 그 핵심은 코로나 극복과 피해 지원이 될 것입니다.

백신 개발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포함한 21명의 의원들도 코로나 극복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산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끈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 의회 개원 이래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의장에 당선됐고 취임한지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성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지만, 지난 30년간 자리 잡아왔던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깬다는 것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의 경우 앞서 2006년 제5대 의회에 여성의원 5명이 입성하면서 처음으로 의회 내 금녀의 벽이 허물어졌고, 이후 8대 의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7명의 여성 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선거 제도 개선과 의회 내 수평적 의사결정 과정의 정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이끌어낸 변화라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수혜를 입은 사람 중 한명으로서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장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 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모두가 시민의 대표로 충실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

윤태천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산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Q.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3선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시민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됐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절차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결위 위원들과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Q.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 때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관련된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며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회 다산의정대상



Q. 안산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담은 ‘제2회 다산의정대상’에서 기초정치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등병의 마음가짐으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현장을 지키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생 협력과 발전을 위한 안산시·한독상공회의소 업무 협약

11월9일 진행된 안산시와 한독상공회의소의 업무 협약식.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한독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1981년 설립됐으며 우리나라와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독일 현지 기업 및 국내 500여 개 회원사의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실현돼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이끌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용호 SNS 시민기자



원곡동 다문화거리 'Color on the street'

원곡동 다문화 어울림공원에서 열린 'Color on the street' 행사는 다문화특구 활성화와 다양성의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모든 차이가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진다면', '다음의 가치를 아는 아름다움'. 우리는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나요? 다양성을 나타내는 색상들과 문구들로 관람자가 직접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 오금화 SNS시민기자



힐링하고 가세요! 부곡 자연학습장 미니 수목원

부곡 자연학습장 미니 수목원은 피톤치드 길, 관목원, 열매 나무원, 물 향기원 등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2015년에는 도토리 숲, 수크령숲, 암석원, 수국 길, 쉼터 마당 등이 추가로 조성됐고, 최근에는 화려하고 예쁜 LED 수국 정원까지 만들어져 안산 공원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쉼터에서 힐링하고 가세요!

• 김용호 SNS시민기자



안산 청년공간 '상상대로로 범 내려온다'

혹시 상상대로로 범이 내려온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요즘 가장 핫한 곡!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곡을 커버해서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대로 홍보영상을 제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촬영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홍보 영상은 상상대로의 공간을 배경으로 안산의 청년들과 서울예술대학교 실용무용 전공 학생들이 힘을 모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영화 '늑대의 유혹'을 패러디한 장면도 즐겨보세요!

• 남은서 학생기자



안산의 스포츠 유망주 떠오르는 셋별, BMX 전우성 선수

BMX는 변속장치가 없는 소형의 자전거를 이용해 프리스타일 곡예를 수행하는 스포츠입니다. 안산 성호중학교 2학년 전우성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호수공원에서 프리스타일로 자전거를 타는 형들의 멋진 모습에 끌려 혼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걱정을 무릅쓰고 전국대회 초등부 3위, 6학년 때는 전국 1등을 차지하며 BMX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좋은 성과를 얻은 전우성 선수를 응원합니다!

• 손현지 학생기자



도심 속 안식처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재개장

코로나19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10월26일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비 50%만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요일이나 주말은 인기가 너무 많아 티켓 오픈 시간을 기다려서 재빠르게 예약했는데요! 안산시민은 30% 가격 할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램핑, 카라반, 오토캠핑 사이트, 편의시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즐겨보세요!

• 이예은 학생기자





심훈 선생 소설 '상록수' 무대,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동

마을정원 '함께가든' 함께 가꾸고 함께 즐겨요!



사동주민협의회는 사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인근 완충 녹지대와 등지길 골목정원을 중심으로 '함께가든' 마을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월5일부터 한 달 간 마을정원사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 성인까지 교육 대상을 나눠 총 4회에 걸쳐 식물과 정원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램별 1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야외에서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이뤄진다. '함께가든'은 2020년 경기도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사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유순, 이영임 사동주민협의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힘들게 조성한 마을정원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원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마을정원사 교육, 초화류 식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숙 사동장은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이 마을정원에서 힐링하며 조금이나마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사동행정복지센터(031-481-5502)

해양동

조깅 말고 '줍깅' 해요



상록구 해양동체육회는 11월9일 체육회원 및 지역주민 50여명과 함께 해양동 산책로 걷기와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줍깅'을 실시했다.

'줍깅'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과 달리기 '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plogging)'을 한국식으로 쉽게 표현한 단어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종의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쓰레기를 줍는 '줍깅' 동작이 스쿼트나 런지 자세와 비슷해 큰 운동효과를 낼 수 있어 건강도 챙기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수변공원~갈대습지공원~세계정원경기가든 부지까지 왕복 약 10km 코스로 진행됐다.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한 손에는 쓰레기봉투,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 줍기 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권영덕 해양동체육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 등 쓰레기 증가에 따라 환경을 지키고 야외활동 자제로 지쳐있는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이번 체육행사를 진행했다"며 "많은 주민이 건강증진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동행정복지센터(031-481-5464)

성포동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성포동새마을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2020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를 11월18일부터 19일, 이틀에 걸쳐 성포동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성포동새마을회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직접 배

추김치를 담가 7kg씩 포장한 80박스를 관내 경로당과 홀몸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통장협의회 등 관내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훈장골, 사랑의 병원 등 성포동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한마음이 되어 적극 후원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영애 새마을부녀회장은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에 몸은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이 담긴 김치를 전달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성포동행정복지센터(031-481-5509)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이불의 두께만큼 따뜻한 소식입니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 소식이 궁금하다.

중앙동

자율방범대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해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11월11일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자율방범대 중앙예술지대와 중앙지대를 차례로 방문해 대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중앙동 자율방범대원들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활동을 하는 한편, 겨울철 제설 작업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법활동을 잠정 중단했으나, 지난 10월1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김한수 중앙예술지대장과 하용주 중앙지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서로 더욱 힘내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앙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숙 중앙동장은 “낮에는 생업에, 밤에는 귀한 시간 내어 중앙동 치안을 위해 애써주셔서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031-481-6703)

선부2동

겨울나무와 시인의 만남



선부2동행정복지센터는 겨울철 가로수 월동 준비와 연말 따뜻한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사주변과 지곡로 일대에 자체 제작한 수목보호대로 ‘그래피티 니팅(Graffiti Knitting)’ 활동을 진행했다.

그래피티 니팅의 뜻은 말 그대로 Graffiti(벽에 하는 낙서), Knitting(뜨개질)의 합성어로 황량한 거리의 나무나 구조물에 직접 만든 뜨개옷을 입혀주는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선부2동주민자치위원회와 안산시여성문학회, 우리동네 에코하우스 등 참여로 진행됐다. 선부2동의 그래피티 니팅은 조금 더 특별하다. 주민들이 손수 모은 재활용 니트를 선부2동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리동네 에코하우스’에서 한뼘 한뼘 재단하고 그 위에 안산시여성문학회 회원들의 자작시를 입힌 친환경 거리에 슬이기 때문이다.

이영분 선부2동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거리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부2동을 아름답고 볼거리가 득한 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선부2동행정복지센터(031-481-6739)



어려운 시기에 홀로 생활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게
식사하시길 바라며,
백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맛있는 밑반찬과 따뜻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초지동

좋은 이웃이 선물하는 작지만 소중한 음악회!

11월7일 오후 옛 단원구청 폐 도로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따뜻한 차와 음악이 있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노동자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좋은 이웃과 함께 가을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이번 작은 음악회는 올해 경기도 노동자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마련됐다. 작은 음악회는 사전마당과 1부(작은 음악회), 2부(우리들의 이야기) 순서로 진행됐다. 사전마당에서는 먹거리, 재활용 나눔 장터, 전통놀이, 4·16공방 수제품 전시 등이 열렸고, 반월공단 소재 노동조합이 자원봉사로 참여한 먹거리마당은 따뜻한 차와 먹을거리

를 무료로 제공해 나눠 먹으면서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환경보호와 코로나19 사태로 물컵 등 개인 물품을 준비해 사용했다. 1부 음악 공연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임 공연과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한 노래패 공연이 이어졌다. 2부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4·16가족협의회 최근 소식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이야기가 펼쳐졌다.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입주민 민원을 지원하는 경비노동자 대다수가 고용불안에 떨면서 불안한 일상을 보내는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이날



작은 음악회는 몸짓패 ‘챌린지’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오랜만에 일상의 여유를 되찾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문의 :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031-411-2323)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헤헤 잘 웃는 우리 헤보

아기 이름 : 김현진(남) 출생년월 : 2020년 5월

올해 5월 4일 태어난 우리 집 둘째 아들 현진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가들을 보면 안쓰럽고 짠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씩씩하고 안 아프게 잘 자라주는걸 보면 대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 둘째 역시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요. 요즘은 두 살 위 누나바라기가 되어 누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어가고, 누나가 가지고 노는 것 또한 똑같이 만지고 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누나가 엄청 싫어해서 한 대씩 맞기도 하지요.. 남매가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째는 성격이 좋은 건지 헤헤 빵긋빵긋 잘 웃어요. 그래서 별명이 헤보랍니다.

초보엄마인 저는 요즘 한창 고집쟁이인 누나를 봐 주느라 정신이 없어 현진이는 뒷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엄마가 눈만 마주쳐줘도 함박웃음을 지어주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엄마인 저는 짠하고 또 미안합니다. "선물같이 기쁨으로 찾아와 준 우리 현진아 엄마는 우리 현진이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아직까지는 엄마가 현진이에게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이 더 큰 것 같아 항상 미안해. 엄마가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우리 현진이 많이 사랑해주고 지켜줄게!"
· 이희진(단원구 초지동)



노을

해님이랑 노을은 친구야
저녁녘 노을이 나오면
해님도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잖아

구름이랑 노을은 친구야
저녁녘 노을이 나오면
구름도 불타는 노을 색으로 변하잖아

바람이랑 노을은 친구야
저녁녘 노을이 나오면
바람이 불어 노을을 춤추게 하잖아

나도 노을이랑 친구야
나는 노을이 예쁘다 하고
노을은 내가 예쁘다 하고



· 황내림(관산초 4)

독자투고

자전거

아빠가 사주신
연분홍 자전거



말랑말랑 복숭아색과 똑같은
내 자전거

알록달록 단풍 옷 입은
호수공원을 같이 달린다

울긋불긋 매운맛이 물든
단풍을 지나온 바람이

내 얼굴을 따끔따끔하게 한다.
나는 더 세계 페달을 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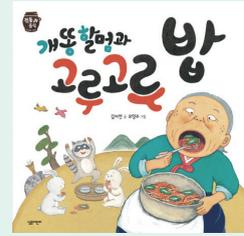
· 황신비(슬기초 2)

책 읽는 안산 / 12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읽고 먹으면 더 맛있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아동



개똥할머니와 고루고루 밥

저자 김자연, 유영주 / 출판사 살림어린이

우리 내음 가득한 유쾌한 이야기와 전래동화 풍의 구수하고 귀여운 그림이 만났다. '비빔밥을 좋아하는 반달곰'이라는 신선한 소재로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재미있게 알려주어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숲 속의 큰 동물과 작은 동물들이 음식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이야기를 통해 융합과 상생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도와주는 작품.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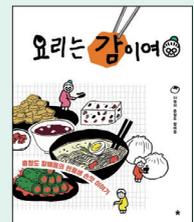


소년이여 요리하라!

저자 오은, 김보통 / 출판사 우리학교

요리의 '요' 자도 모르는 평범한 십대 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가꾼다는 것의 의미, 즉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건네는 책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중 하나는 삶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립 기술'이, 언젠가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될 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되리라.

성인



요리는 감이여

저자 51명의 충청도할매들 / 출판사 창비교육

한글 학교에 다니는 충청도 할머니들이 손 글씨로 쓴 요리법을 책으로 엮었다. '김치와 장아찌, 국·찌개와 반찬, 요리, 간식'의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떡이나 된장처럼 지금은 흔해진 음식도 있고 병어볶음, 참외장아찌처럼 생소한 음식도 들어 있다.

나의 도전, 남편의 재기(再起)



코로나19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 일상 속에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불어 닥친 재앙이자 재난이었다. 나라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과 교회에서 받은 약간의 물품, 보험 해지 등으로 생활비를 아껴보려 했지만 10개월 째 이어진 경제적 공백을 메꾸기는 힘겨웠다. 남편의 일자리 상황도 좋지 않았다. 월급은 깎일 대로 깎였고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경제적 난관에 빠졌다.

없는 돈을 아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모든 소비를 멈춰도 나갈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도 안 된다. ‘값을 수 없는데 빚만 쌓여서는 안 된다’는 좌우명을 갖고 아르바이트(알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알바 앱에서 한 물류회사를 알게 됐고 나의 휴가 5일을 투자해 바로 지원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의 아침과 점심을 준비해놓은 후 통근버스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내가 주문한 상품들이 어떻게 진열되고 배치되는지, 포장과 납품 등 과정을 보면서 학교 운동장만한 건물 안을 열심히 뛰

어다녔다. 물건을 담고 나르기를 수백 번. 연장 근무까지 하면서 첫날을 마무리했다. 출근 4일째가 되자 발가락에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근육통이 심해졌다. 온몸에 파스를 바르고 5일 간의 근무를 모두 마쳤다. 단순노동을 하지 않던 내게 참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큰 경험이었다. 남편을 도와줄 수 있어 감사했고 일할 곳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알바 얘기를 들은 남편은 너무 미안해하며 이직 기회를 더 찾아보겠다고 했다. 아내가 애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고.

“여보,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잖아. 우리는 아직 건강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자”

“환경과 상황에 불평, 불만,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며 나아가자. 좋은 날이 오겠지. 여보, 우리 파이팅!”

· 박정화(상록구 율피동)

법은 엄격해야만 하는가



중국 전국시대에 상앙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다. 상앙은 진나라에서 변법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군주의 절대권력 확립에 큰 공을 세우고 재상이 되었다. 상앙은 열 집 또는 다섯 집을 한 조로 묶어 서로 잘못을 감시하고 한 집이 죄를 지으면 그 조가 똑같이 벌을 받도록 하는 등 극히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또한 그 법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적용하여 집행했다. 이러한 상앙의 법제정과 집행은 엄정한 정도를 넘어 잔혹할 정도였다. 상앙이 모시던 효공이 죽고 태자가 그 자리를 잇자 태자의 측근들은 상앙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밀고하였다. 상앙은 죽음을 면하려고 변방 부근까지 달아나 여관에 머무려고 했다. 여관 주인은 그가 상앙임을 모르고 “법에 의하면 여행증이 없는 손님을 묵게 하면 그 손님과 연좌되어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상앙을 여관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였다. 상앙은 자신이 만든 엄격한 법 때문에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진나라의 군사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법은 고대에 권력자의 지배 수단으로 시작하여 중세와 근대를 거쳐 인권의식이 크게 발전한 현대에는 사

회적 약속으로서 인권보호 수단의 역할도 중요하게 인식된다. 우리는 사회의 공분을 살만한 범죄행위나 사회현상이 발생하면 그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사회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직면한다. 그에 따라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000법 등의 가치으로 많은 법령이 제정된다. 잔혹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지만, 매년 그 상황에만 적용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요구는 대부분 더 강력한 처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점도 경계할 부분이다.

엄격한 법을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있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점. 나아가 현대법은 인권보호도 중요한 가치로 요구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 김성천 변호사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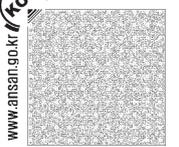
주제 생후~36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대부도

JTBC (10월 27일)
웹예능 트러블러
안산 대부도 여행

안산이 9경 중 한곳으로 꼽히는 갈매습지공원

MBC (11월 6일)
생방송 오늘저녁도심 속
가을 여행지

40년 만에 '권역별 순환버스' 신설...65세 이상 무료

OBS (11월 2일)
40년 만에
권역별 순환버스 신설

늦가을 낭만 가득한 대부도입니다

SBS (11월 10, 17, 24일)
불타는 청춘
대부도편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카페 2021년 상반기 장난감 및 도서대여 회원모집

- ◇ **이용대상** : 안산시 거주 또는 재직 중이며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2018. 1. 12. 이후 출생아)
- ◇ **접수기간** : 2020. 11. 23. ~ 12. 10.
- ◇ **이용기간** : 2021. 1. 12. ~ 6. 30.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center.ansanbo6.or.kr)
- ◇ **문의** : 육아종합지원센터(031-481-8683~4)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 **대상** : 출생일 및 출생일 현재 안산시 거주 가정
-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안산화폐 다온 50만 원 지급
- ◇ **접수방법** : 출생 신고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019. 7. 16.~2020. 7. 15. 기간에 경기도 거주 1년 미만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출생 신고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 **문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정보육어린이 과일 바우처 신청 안내

- ◇ **신청기한** : 2020. 12. 11. 까지
- ◇ **대상**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 (양육수당 수령 대상 아동 : 9월 기준)
- ◇ **지원내용** : 과일 구매 전용 지역화폐 지급(1인당 40,500원)
- ◇ **신청방법** : 온라인(voucher.konacard.co.kr/41)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사용처** : CU, GS,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편의점
- ◇ **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17)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 **행사일시** : 2020. 11. 23. ~ 12. 11.
- ◇ **참여방법** : 온라인(jobfair.incruit.com/kicoxansan)을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진행
- ◇ **참여기업** : 구인업체 30여개(우수기업체 포함)
- ◇ **행사내용** : 구인·구직자 간 온라인채용 및 취업 컨설팅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19)

상상대로 & 청년 '함께해서 고마워' 청년공간 상상대로 2020 연말정산 행사 안내

- ◇ **행사일시** : 2020. 12. 5. 오후 3시~5시
- ◇ **참석대상** : 청년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안산시민, 유관기관 모두 환영합니다!
- ◇ **행사내용** : 사진전, 체험부스, 공연, 토크콘서트 등
- ◇ **장소** : 단원구 선부로 312(와동), 상상대로
- ◇ **문의** : 상상대로(031-492-2030~3)

2020 안산문화광장 '성탄트리' 점등

- ◇ **기간** : 2020. 11. 15. ~ 2021. 1. 15.
- ◇ **운영시간** : 오후 5시 ~ 다음날 오전 1시
- ◇ **내용** : 소형물 LED조명 및 포토존 운영
-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7)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안내

- 한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계량기실을 점검해 갑작스런 추위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보은 조치 부탁드립니다.
- ◇ **신고**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주간 031-481-2037 / 야간 031-481-3715)

12월의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독〉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 안산시는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권역별 도심 순환○○를 도입합니다.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 ① 지하철 ② 버스 ③ 택시

Q 2020년 11월, 사라진 시화호 어촌 문화와 별망 마을을 복원한 이곳이 개관했습니다. 모래체험도 즐기고 아름다운 전망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 ① 별망어촌문화관 ② 산업역사박물관 ③ 성호박물관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 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능)



응모기간 : 12월 22일까지 11월 호 정답 : ①, ③

등록금 반값 지원!

전국에서 안산뿐!

2021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지원대상 | 2단계로 확대(1단계 + 차상위, 한부모 가정)
*1단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지원금액 |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X 50%

접수시기 | 2021년 2월~5월, 9월~11월

안내사항 |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학기별 100만원 한도 지원

문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www.ansanfys.or.kr